

식약처, 불법 마약 차단 위해 육군본부와 두 손 맞잡는다

- 식약처-육군본부, 마약 중독·오남용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올바른 인식 확대를 위해 군인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에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육군본부(참모총장 직무대리 고창준)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6월 1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마약사범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4년 전체 마약사범(23,022명) 중 20대는 32%(7,515명)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대검찰청 통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육군본부는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군인 대상 마약 예방교육 및 중독 재활 사업의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 20대 비중 : ('19) 21.9% → ('20) 24.9% → ('21) 31.4% → ('22) 31.6% → ('23) 30.3% → ('24) 32.6%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 장병 대상 마약 중독·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군사경찰 수사관 양성사업 운영 ▲홍보·캠페인 행사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식약처는 마약예방 전문강사를 군부대에 파견하는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24년 6만명)하고, 군인 맞춤형 교육 교재와 온라인 영상을 개발·배포하여 군부대의 자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마약 예방 학습만화를 국방일보에 연재*하는 등 전국 50여만명 규모의 군 장병 인식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 5.12.부터 매주 월요일 총 10주 이상 연재 예정

이와 함께 육군본부는 마약 범죄 수사 및 예방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이 군부대를 대상으로 마약 중독 폐해, 대응요령, 예방교육 기법 등을 교육*한다.

* 6월 중, 지역별 총 12회, 약 400여명 대상 전문교육 예정

이날 협약식에서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20대 청년층 중 집중적으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직군이 군인과 대학생이다”라면서, “이들이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인치열 군사경찰실장은 “군 내 마약 범죄는 군의 임무특성과 조직 내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개인적 일탈을 넘어서 군기강과 대군신뢰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전 장병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다양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군인, 대학생 등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하는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동원국립마약퇴치운동본부

#ADHD #살빼는 약 #나비약 #마약 #대마 #향정

“마약 문제로 힘들 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고동스런고,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1342가 함께 할게요.

1342
당신의 일상 SOS 24시간 사이

담당 부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예방활동팀	책임자	과 장	김상현 (043-719-2581)
		담당자	서기관	김지연 (043-719-2589)
담당 부서	육군본부 군사경찰실 군사경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진신도 (042-550-1820)
		담당자	중 령	강진영 (042-550-1821)

12. 마약 없는 안전한 복 만들기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국방일보

마약, 제1회 ●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하는 '마약 없는 안전한 복 만들기'를 전개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바로 알고, 마약으로부터 나와 전투를 지킵시다.

▲ 육군본부 군사경찰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얼굴에 뭐 묻었나? 내 쪽이나 잘 봐...
내네 중성중성 칼라리... 뭐라고...?
임구호?? 그게 뭐고, 리리
이놈 봐라! 너 요새 필이렇게 팜박이는 거야!
아? 장난하나? 너 오늘 임구호 뭐야
안 돼! 가의 끝나 가잖아... 좀 있으면 근무교대 때 조금만 잠아라.
그리고 근무 중에 어딜 이따 하나?

우욱...!
아이 자식...! 허 씨... 빨리 일로 안 왜?
아깝지 않은 근무 중에 자리 비우면 되겠나?? 장난 하나??
하... 씨... 그만 좀 잠아 가라 좀... 안 그래도 뒤지겠으니깐... 내가 뭐라고 하는 거야...?

뭐이 새끼야?! 지금 근무 중인 거 몰라?
근무는 무슨 놀이 근무! 계속 쳐다보느라 정신병 걸리겠다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오늘 더 집중하라고 했어 안 했어?
우아아악... 저 괴물은... 뭐야...! 저리 가버려!!!



00부대 상병 C씨는 마약류를 부대에 반입 후 보관하다 적발됐다. C씨는 2019년 3월 휴가 중 서울 서초구 한 모텔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뒤, 남은 마약류는 부대 내에서 투약하기 위해 가방에 넣어 복귀했다. C씨는 군사경찰대 수사관에게 발각될 때까지 숙소 관물대에 마약류를 36일간 보관했다. 그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층 4호 휴게실 22호 10층 4호 기차
부대내 내외 국외 정주지역
전통시장에서... 운영 가능
http://www.joongnam.com/1210101/28101377

마약의 유혹, 철벽 방어 전략!

마약에 대한 공격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군 생활 중 마주할 수 있는 마약의 유혹,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강력한 군인이 되기 위한 철벽 방어 전략을 전수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기: "싫습니다"
마약을 복용하는 상황, 당황하지 말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 하서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싫습니다", "안 관심 없습니다", "저는 절대 안 합니다" 등 절제하고 확실한 거절 표현을 사용하세요. 절절하거나 애매한 대답을 보이면 당대장은 즉시에서 유혹할 수 있습니다.

위협 상황, 과잉리 벗어나기: "퇴장"
휴가 중 낯선 사람이 주는 물품이나 직원은 절대 받지 마세요. 상황이 의심스럽거나 위험해 보인다면,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도움 요청하기: "SOS"
과연의 유혹에 혼자 맞서기 힘들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믿을 수 있는 동료, 선장, 지휘관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발당명령 전문 상담원이나 부대 보안 지대에 연락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